다문화가족지원정책 실무자 인식분석
Administrators' Perception of Multicultural Support Policy

전 효 정(동아대 부교수) · 한 상 아(동아대 석사과정)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실태를 알아보고 현장에서 정책을 실천하는 실무자가 인식하는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참여 및 만족도와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수요의 문제점 및 필요성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적합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정책 실무자 설문조사는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이하 "실무자")를 중심으로 2011년 8월 8일에서 8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전수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응답자는 32명으로 응답률은 82.1%이다. 설문지 배포 및 회수는 우편, 직접방문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및 결론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결혼이민여성의 초기적응에만 중점을 두고 있고 한국사회로의 동화지향성의 성격이 강하다. 부산지역 결혼이민자의 8.2%를 차지하는 결혼이민남성은 소외되고 있으므로 그들을 대상자로 확보하는 방안이 요구되며 결혼이민여성은 한국인이 여성을 무시하며, 남성은 가부장적이어서 적응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부계 · 부권 중심의 가족중심주의적인 한국사회 적응 및 성 평등을 위해서는 결혼이민여성의 남편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해체 및 가족갈등 해소를 위한 가족교육 및 가족상담 활성화가 요구된다. 결혼이민자들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가정폭력, 부부갈등, 이혼 등의 문제를 상담하여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결혼이민자의 인권 보호 및 인종편견, 다문화이해부족 해소를 위한 한국인 대상 다문화교육 필요하다. 체계적인 교육 및 현실성을 고려하여 장기적 비전을 갖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 반편견 교육, 다문화이해교육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